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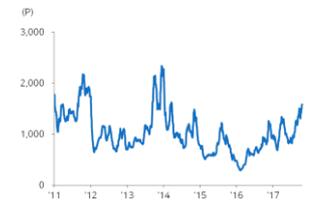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584.8	21.1	151,500	-0.3	6.7	-14.6	9.4	54.5	123.3	0.8	0.8	1.3	0.6
현대로보틱스	7,361.6	20.4	452,000	-1.8	8.8	7.4	NA	5.0	5.6	1.0	0.8	19.4	15.8
현대일렉트릭	987.6	5.3	244,000	-0.4	2.8	-18.5	NA	12.0	8.1	1.1	1.0	9.5	13.1
현대건설기계	1,411.4	9.6	363,000	-2.8	-0.8	9.9	NA	11.3	8.7	1.5	1.3	13.1	15.8
삼성중공업	4,407.0	18.3	11,300	-2.6	7.6	-7.4	22.2	57.3	122.2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4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010.0	13.3	100,500	-1.0	6.7	-9.5	49.6	9.9	34.1	0.8	0.8	8.9	2.4
한진중공업	4,125.4	4.4	3,890	-1.9	2.4	-13.2	15.6	-12.1	8.8	0.5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340.0	30.3	54,400	0.7	12.6	-7.2	-5.2	10.1	9.6	1.5	1.3	15.9	14.6
두산인프라코어	3,829.5	24.5	38,200	2.8	3.5	10.4	6.6	16.8	15.4	1.1	1.0	6.6	6.7
현대로템	1,521.5	28.1	17,900	-0.8	3.8	-9.6	-1.4	33.9	22.9	1.1	1.0	3.2	4.6
하이록코리아	298.1	47.4	21,900	-0.9	1.6	-6.0	3.8	11.5	10.1	0.9	0.9	8.5	9.0
성광벤드	262.8	14.0	9,190	1.7	0.0	-9.0	3.7	29.7	17.1	0.6	0.5	1.9	3.2
태광	254.4	16.6	9,600	1.1	6.7	-1.6	15.8	35.9	19.8	0.6	0.6	1.6	2.9
두산중공업	2,065.4	8.8	19,400	-1.3	16.5	-7.6	-28.7	35.0	11.4	0.7	0.6	2.4	5.8
두산인프라코어	1,923.4	10.8	9,270	1.8	10.9	13.5	5.1	10.4	8.7	1.0	0.9	9.0	9.9
두산엔진	270.7	4.6	3,895	2.6	4.9	-3.2	18.6	23.5	22.7	0.5	0.5	2.1	2.2
한국항공우주산업	5,692.5	21.1	58,400	3.9	33.0	15.9	-12.8	44.7	23.3	3.8	3.4	8.5	15.0
한화테크윈	1,956.7	20.4	37,200	-2.2	9.4	-6.2	-14.4	22.8	16.7	0.8	0.8	3.7	4.9
LG넥스원	1,707.2	19.8	77,600	-0.1	8.4	7.0	-3.6	16.9	16.6	2.4	2.2	15.6	13.7
태웅	333.1	3.5	16,650	0.3	0.9	-31.9	-25.8	43.0	14.7	NA	NA	1.2	3.5
동성화인텍	130.9	3.4	4,850	-1.1	1.5	-21.4	-15.7	NA	NA	NA	NA	NA	NA
한국가분	263.3	16.6	5,900	0.5	3.6	-1.5	-1.0	20.1	27.1	0.8	0.8	4.1	3.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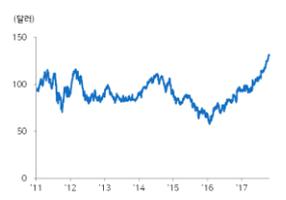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4 1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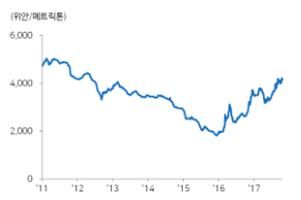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Caterpillar(CommonStock): +0.59 131.36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25p(+1 WoW), 중고선가 지수 90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5p(+1 WoW), 중고선가 지수는 90p를 기록함. Vitol은 현대중공업에 8.4만CBM급 VLGC 2척의 옵션을 행사함. 인도는 2019년 6월, 8월에 계획됨. 노르웨이 Mosvold Shipping은 중국 Jiangsu New YZJ 조선소에 18만DWT급 Capesize 벌크선 2+2척을 발주함. (Clarksons)

Keppel O&M job cull reaches 20,000

싱가폴 Keppel Offshore & Marine은 3분기 실적발표에서 근로자 수가 2015년 초 약 36,000명에서 현재 16,00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고, 향후 비용 관리에 노력할 계획임. 최근 해양 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이 있지만, Jack-up 시장은 낮은 가동률과 공급과잉으로 신규 발주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TradeWinds)

COSL sets sights on international drive

China Oilfield Services Ltd(COSL)은 힘든 시장상황에도 회사 규모를 키우며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임. 관계자는 5년 내에 유전 서비스 업체 Schlumberger, Halliburton과 함께 글로벌 3대 회사로 진입을 목표로함. 또 자국 내 해양 부문에서 매출의 50%, 해외시장에서 50%로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임. (Upstream)

Rosneft orders 10 more tankers at Zvezda

러시아 Rosneft는 Zvezda 조선소에 Shuttle Tanker 10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선가는 공개되지 않았고, 선박의 규모는 4.2만DWT급으로 ARC7 기준에 부합할 예정. 인도는 2023년에 예정되며, 해당 선박은 최대 1.8미터 얼음 두께와 극저온 환경에서도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됨. (TradeWinds)

드류리 "세계 해운업 운영이익 내년에도 계속 증가"

해운 컨설팅 그룹 Drewry는 내년에도 해운사업 운영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내년 해운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권의 무역량 증가 가능성과 주요 선사간 M&A로 비용절감 및 시너지 효과를 언급함. 반면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언급함. (EBN)

Maersk's Toft: 'handful' of lines to remain

Maersk Line 관계자는 컨테이너 업계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기업인수가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택배 업체처럼 세 개의 글로벌 회사로 과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처럼 비용과 선박 크기 경쟁이 아닌, 항만 처리시간과 같은 서비스 개선이 중요해졌다고 언급함.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0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O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0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0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